

국제화시대의 지역개발전략

정희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좌교수 겸

도시경제연구소 소장

□ 서론

- 본 논문은 다음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세계화는 무엇이며 지역개발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신행정수도이전 (혹은 유사한 사업)이 국제화시대의 지역개발전략에 적합한가
 -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전략의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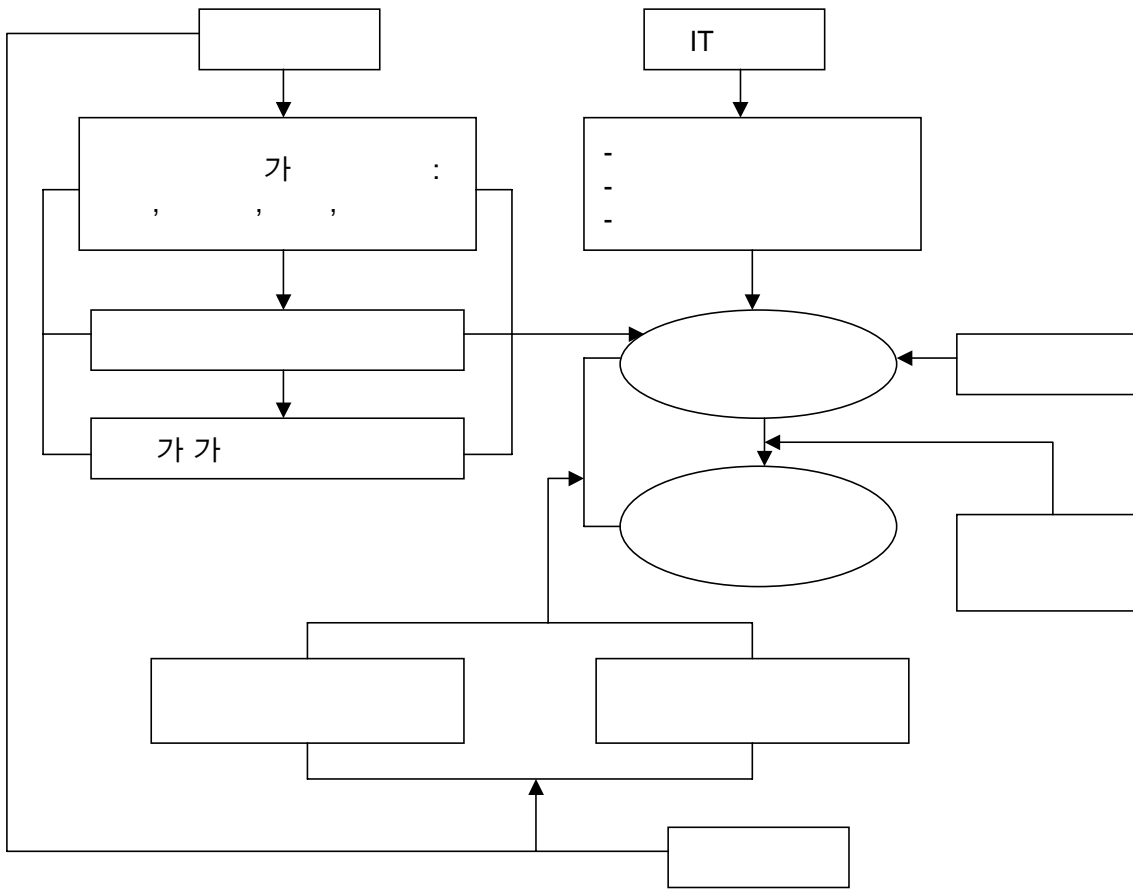
□ 세계화 및 IT혁신시대의 지역개발모형

- 세계화 및 IT혁신시대의 지역개발모형을 <그림 1>에서 요약했다.

1) 세계화

- 우선 세계화는 기업, 노동력, 자본, 경영기술 등의 세계적 이동을 가속화시킨다.
- 또한 생산성제고를 위해 기업 및 생산요소의 세계적 이동이 불가피하여 세계적통합을 유발시킨다. 특히 다국적기업(MNF)의 세계적통합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MNF지역적 지사의 1/4이 개도국에 입지한다.
- 다국적 본사 지사유치를 위해서는 개도국과도 경쟁을 해야 한다.
- 한편 기업 및 생산요소의 세계적 이동은 세계적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한다.



<그림 1> 세계화 및 IT혁신시대의 지역개발 모형

- 경쟁이 심화되면 생존을 위한 최적경영전략은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혹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에 가장 부가가치가 좋은 재화는 금융, 보험, 부동산, 마케팅, 경영컨설팅 등의 고급서비스다. 그러한 이유로 뉴욕, 런던, 동경, 싱가포르 등의 대표적 세계도시는 고급서비스위주의 산업체제를 선호하고 있다.(Taylor et al, 2002; Fujita, 2003)
- 서울도 제조업보다는 고급서비스위주의 산업구조로 가고 있다.(Hill, Kim, 2000)

2) IT 혁신

- 한편 통신기술(IT)혁신으로 인해 수평적 정보교류가 가능해져 개인이나 지방정부도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IT혁신은 정보생산비용과 거래비용을 절감하게 한다.
- 대도시의 성장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집적경제(economy of agglomeration)개념이다.
 - 집적경제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공동입지경제(economy of location), 도시화경제(economy of urbanization)로 구성된다.
 -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클수록 평균생산비용이 감소되는 과정이다. 동일한 조건하에서 도시인구가 클수록 생산량이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규모의 경제는 도시규모와 직접적 관계가 있다.
 - 공동입지경제란 동일한 산업에 속한 기업이 같은 장소에 집결함으로써 얻어지는 혜택(공동마케팅, 공동고객유입, 정보교환)을 말하며 동일한 조건하에서 도시인구규모가 클수록 혜택규모가 클 것이다.
 - 마지막으로 도시화경제란 대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교육시설, R/D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오락시설, 교통시설 등이 가능하게 하는 혜택을 말한다. 도시화경제도 역시 동일한 조건하에서 도시규모가 클수록 커질 수 밖에 없다.
- 세계화, IT혁신 및 집적경제 등의 결합된 영향 때문에 세계도시(world city)가 등장하고 또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 세계도시는 1순위, 2순위, 3순위 등 인구규모 및 기능에 따라 등급화된다. 세계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적 도시체제(world urban system) 및 국가적 도시체제(national urban system)가 형성된다.
- 세계도시의 기능은 자본, 고급인력, 기술 등을 외부로부터 유입 및 개발로 첫째, 자체의 성장을 확보하고 둘째, 성장의 결실을 도시체제를 통해 전 지역, 전 국토에 분산시키는 것이 세계도시의 핵심적 기능이다.
- 세계도시성장의 결실을 전 지역, 전 국토로 확산시키려면 적합한 도시간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 상위도시와 하위도시간에는 경쟁적 관계보다 보완적 관계 그리고 동일한

수준의 도시간에는 선의의 경쟁관계도 있겠지만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 한편 정부의 역할이 변해야 하고 변하고 있다. 세계화 및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역경제개발을 직접 주도하는 것보다는 지방정부의 기능 및 국제화를 도와주는 역할(enabler)을 해야 할 것이다.
- 지방정부는 정치, 정책 및 재정분권화를 통해 국제적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 세계화시대 선진국의 지역개발전략

- 선진국의 지역개발전략은 다음을 포함한다.
 - 세계도시, 대도시, 중소도시 모두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ning)을 통해 세계경제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세계경제발전의 혜택을 극대화한다.
 - 국내의 상위도시와 연결하여 상위도시성장의 혜택을 나눈다
 - 동등한 순위의 도시와는 전략적제휴를 구성한다.
- 전략적 계획은 다음 3원칙에 입각한다. 즉 개방/연계성(openness, connectivity), 친근성(proximity) 및 개혁성(innovation)(Jordi, Borja and Manuel Castells, 1996)이다.
- 개방/연계성은 국내 여타지역은 물론 전세계와의 연계성을 의미한다.
- 친근성은 정책시행주체인 지방정부가 개발계획 처음단계부터 시민의 적극참여를 말한다. 친근성을 통해 주민의 공감대형성은 물론 주민의 힘(energy)을 동원하고 활기넘치는 창조적 분위기 조성이 가능해지고 지역의 지속가능개발확률이 극대화된다.
- 혁신은 생산기술혁신은 물론 특히 행정조직 및 의사결정과정(governance)의 혁신을 말한다. 민주적, 참여적, 창조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를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 몇 개의 사례를 들어보자.

㉠ 서바나 Barcelona시의 「Barcelona 2000 Economic and Social Strategic Plan」 계획은 1988년에 시작했으며 다음의 특징을 보였다.

- 처음부터 참여한 조직, 기관 : 시정부, 시상공회의소, 산업대표, 노동조합, Trade Center, 사용자협회, 지역대학 등 시내의 단체는 모두 참여했다.

- 3개의 전략

Barcelona (,)

㉡ 콜롬비아의 「Bogota 2000 Strategic Plan」

- 시민참여: 자문위원회(300기관), 추진위원회(35 구성원, 시장, 정부의 개발부, 시의회, 노조, 상공회의소, 은행협회, 상업협회, 대학, 언론, NGO)

- 목표

: ,
: , ,
(, ,)

:
: ,

- 조치

Bogota River

"Bogota Beautiful" ()

㉢ Strategic Plan of Rio de Janeiro

- 시민참여: 개발위원회(340명, 기관 및 조직대표), 추진위원회(22 구성원)

- 1995년에 출범

- 목표

:

: (city center) ,

:

(basic industry) :

/

□ 세계도시의 국내 거점도시 역할

- 거점도시(growth pole city)의 역할은:
 - 자체의 성장
 - 성장과실을 전 지역에 분산

- 지난 '70-'80년 기간 우리나라는 거점도시개발전략을 적용했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유는 대부분의 거점도시가 자체성장도 실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배후지역 개발에도 큰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 배후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려면 거점도시와 배후지역간의 사회적, 문화적, 특히 산업적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 세계도시이면서 국내거점도시역할을 한 도시가 Hong Kong이다.

- 홍콩시는 Pearl Delta지역의 중심지다
 - 지역의 면적 : 50,000km²
 - 인구 : 5천만명
 - 주요도시 : Hong Kong, Canton, Zhuai, Macao 등
 - 성공한 이유
 - 전 지역을 한개의 경제적 단위로 취급
 - 공간적 통합 : 도로, 한강, 공항, 철도
 - 산업적 통합 : * 중소도시 - 대도시기업의 하청업
 - * 중간재는 홍콩에서 배후지역으로 운송
 - * 완공품은 홍콩으로 운송, 수출
 - 인적자원통합 : 엔지니어, 금융전문가, 경영전문가 등은 홍콩 및 대도

시에 거주, 매주 배후지역으로 파견업무

- 경영통합 : 1995년에 10,800개의 홍콩중심으로 한 합동기업설립(joint venture firm)

○ 이러한 선진국 국제도시 경험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

- 첫째, 각 도시개발전략은 외부의 연계성, 내부의 통합성, 대대적인 시민 참여 그리고 개혁적인 거버넌스개편이 세계화시대의 도시개발전략의 핵심이다.
- 둘째, 세계도시의 성장이 전 지역, 전 국토에 긍정적 역할을 주려면 상호 보완적 관계, 수평적으로는 전략적 제휴관계를 허용하는 도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신행정수도이전관련 논쟁이 세계화시대의 지역개발에 부응 하나

○ 가장 보편화된 논쟁은 다음과 같다

- 서울, 수도권 인구, 상업집중은 과밀하다
- 서울, 수도권 집중은 「지역균형개발」에 걸림돌이다
- 따라서, 신행정수도이전과 같은 인구분산을 통해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한다

□ 서울, 수도권의 과밀현상

- 서울, 수도권 집중현상은 너무나 잘 알려진 현상이다. 국토의 11.8%밖에 되지 않는 공간에 인구의 47%, 제조업의 56.4%, 명문대학의 65%, 공기업 본사의 83.2%, 중앙행정기관의 83.6%, 100대 기업본사의 91%가 집중되어 있다.
- 그런데 일정지역의 집중도는 상대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 첫째, 만약 강원도 서부를 수도권에 편입하면 수도권의 집중도는 분명히 낮아질 것이

다. 둘째, 대도시 집중문제는 세계적 추세와 국내의 지방대도시 집중도를 보면 청주는 충북인구의 40%, 전주, 군산, 익산시는 전북인구의 64%, 광주시는 전남인구의 40.3%, 제주시가 제주도 인구의 54%를 각각 차지한다.

- 캐나다 몬트리올시는 퀘벡주(면적은 150만 km²)인구의 60%, 미국의 LA는 캘리포니아주 인구의 40%를 차지한다.
- 권일(2004)은 과밀을 일정지역의 면적비율 대비 인구비율로 추정한바 수도권 과밀수준 3.95배(2000)인데 비해 시부의 과밀은 8.42배, 경부축 지역의 과밀은 6.28배라 한다.
- 한편 수도권의 과밀수준이 떨어지는 추세다. 권용우(2004)에 의하면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2003년의 47.6%에서 2030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한다고 한다.
- 박수영(2004)은 서울의 인구증가율이 4%(‘70-’80년 기간)에서 3%(‘80-’90년 기간), 1%(‘90-2000기간)로 대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수도권과밀을 해소해야 하는데 최적과밀도가 있을 수 있다.
- 경제학이론(Mill, 1972; Balchin, 2000; 홍성웅, 2004)에 따르면 적정인구규모는 인구증가의 한계비용(marginal cost)과 한계효율성(marginal benefit)과 일치하는 점이다.
- 인구증가의 한계비용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소음, 대기오염, 교통사고 등의 사회비용을 추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비용을 계량적으로 추정할 연구자료도 있다(인방송, 1998 ; 홍갑선, 1999) 그러나 적합한 규제, 과태료 및 기타 방법으로 오염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며 인구분산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 어쨌든 서울, 수도권과밀이 사회비용을 유발하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인구증가에는 사회혜택도 있다는 것이다. 인구집중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집중은 집적경제를 증가하게 하여 해당지역의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도시의 적정규모는 비용보다 효율성이 클수록 커질 수 있다.

□ 서울, 수도권과밀로 인한 지역격차는 어느 정도 악화되었나

- 정희수(2000)는 지역격차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와 지수기법으로 검토한바 있다.
- 변동계수

구분	1985	1996
1인당 GRP	0.69	0.49
1인당 은행예금	0.75	0.47
1인당 은행대출	0.74	0.30
인구천명당 도로연장	0.57	0.55
인구천명당 공무원	0.29	0.29

- 이와 같이 전국적 지역격차는 축소되는 추세다. 변동계수가 낮을수록 지역격차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 지수접근(전국=100)

서울, 경기도 지수	1985	1995
1인당 부가가치	141	111
1인당 GRP	139	107
1인당 은행예금	290	215
1인당 은행대출	292	170
인구천명당 공무원수	57	57
인구천명당 도로연장	215	176

- 서울, 수도권 집중이 지역균형개발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 한편 홍성웅(2004)에 따르면 지역별로 GRP의 최소치 대비 최대치비율이 1970년의 4.0배에서 1995년의 1.8배로 떨어졌다고 한다.

□ 신행정수도이전이 지역균형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나

○ 이 질문은 두개의 질문으로 나누어야 한다

- 신행정수도이전이 GDP를 크게 해 주는가
- 지역균형개발효과란 모든 지역이 긍정적 성장효과를 받을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 류동길 외(2004)는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신행정수도이전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성(productivity)을 추정했다. 생산함수에서 자본의 비중이 35%라 할 때 1996-2001기간의 비수도권의 생산성은 0.011인데 비해 수도권의 생산성은 0.049라 한다.
- 한편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 생산성비율이 1.10일 경우 GDP는 1.8%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 GDP가 감소되는 이유는 노동력, 생산성이 우수한 서울, 수도권지역에서 생산성이 열등한 비수도권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 신행정수도이전이 지역별로 어떠한 파급효과를 줄까
 - 최상철(2004)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생산액이나 고용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나타났다.
 - 지해명(2004)은 MRIO모형(Multi Regional Input-Output)을 통해 신행정 수도이전의 파급효과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바 있다.

(: /1 ; /1)

구분	생산(억원)	고용(명)
전국	-323	-1,316
수도권	-12,257	-17,657
강원도	-118	-106
충청권(충북·남)	10,620	15,762

-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마이너스(-)효과가 있으며 가장 심한 타격을 받는 지역이 수도권이다.
- 요약하면 신행정수도이전은 “지역균형개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행정도시”, “교육도시”, “기업도시” 등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일정 지역개발에 대한 기여라고 볼 수 있으며 전 국토개발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 일정지역의 개발에 도움이 되려면 기존의 지역도시체제와 통합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이러한 “도시”개발을 통해 지역 거점도시의 집적경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우리나라 지역개발전략은 무엇인가

○ 우선 전제조건부터 살펴보자

-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개념 정리
- 전국을 일개의 지역으로 인식
- 종래의 이념적, 갈등적 접근인 풀다운(pull down)전략에서 함께 성장하는 업투게더(up-together)전략
- 권력의 대폭적 분권화
- 지방재정 강화
- 개발계획제도의 개선

○ 오랫동안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용어를 썼다. “균형”이란 개념은 두개의 반대힘이 일치하는 상태를 말한다. 기업의 생산균형은 한계비용과 한계효용이 일치하는 생산량이다. 시장의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재화의 양을 말한다.(임길진, 2002)

- 지역의 균형개발이란 지역격차의 한계비용과 한계효율(benefit)이 일치하는 상태를 말한다. 지역격차가 줄어들면서 생산성면에서 우수한 지역의 생산이 축소되고 열등한 지역의 생산이 확대되면 격차는 축소되지만(효율적) 총생산은 축소(비용)될 수 있다.
- “지역균형개발”의 개념의 문제점은 우선 균형격차를 계량화하려고 한다는 것, 둘째 지역격차를 갈등적 문제로 본다는 것이다.(박수영, 2004)
- “균형”개념 때문에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를 “종속”적 관계로 보는 학자도 있다.
- 좀더 원만한 개념은 “지속가능 지역개발”일 수 있다. 이 개념의 뜻은 각 지역이 지역사정에 맞는 현실적(지속가능) 개발을 구상한다는 것이다. 만약 “균형”을 “균등”으로 본다면 엄청난 부작용이 날것이다.
- 그러나 모든 지역이, 모든 주민이 최소한의 복지(welfare)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필요한 것은 생산이 아니고 분배면에서의 조화로운 격차(balance)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우리는 “지역”을 행정한계선에 따라 정의를 해 왔다. 그러나 세계화속에서의 지역은 가급적이면 넓은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계획 및 정책대상지역이 넓을수록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이다.
 - 앞에서 본바 홍콩을 중심으로 한 Pearl Delta(50,000km²)는 한 지역으로 본다.
 - 우리나라 국토를 한 개의 지역으로 정하고 개발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학적 지역은 경제적으로 통합된 공간단위를 의미한다. 우리 국토는 전 지역의 1일 생활권에 진입했으며 앞으로 경제적, 사회적 통합이 가능해진다.

- 지역간의 관계에 대한 시각
 - 오랫동안 수도권, 비수도권관계를 갈등적 관계로 인식했다. 타지역의 인력, 자본, 기술 모두 먹어 삼킨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 그러나 수도권이 개발됨으로서 산업, 사회 인프라시설이 지역마다 확산되었고 소득이 증가했고 고용이 창출된 것이다.
 - 문제는 수도권의 성장과실 분산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정책과제는 수도권이 전국의 거점도시가 되어서 전지역의 개발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수도권, 비수도권관계를 지역간 관계가 아니고 지역내의 관계로 보고 대립관계보다는 보완적, 협조적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권력분권화 및 지방재정강화
 - 세계화시대의 지역개발전략의 핵심은 각지역의 “내생적 개발”(endogenous development)전략이다.
 - 내생적개발전략이란 각 지역, 각 도시가 지역주민과 함께 개발전략을 구상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정에 알맞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개발은 무엇보다도 재정의 자립도제고는 물론 권력, 권리, 기능의 분권화를 필요로 한다.
 - 신행정수도이전 주장자들은 분권화가 힘들기 때문에 이전한다는데 이전

후라도 분권화가 안되면 지역사정에 맞는 개발을 할 수 없다.

○ 도시·지역 개발계획

- 우리나라 같이 계획을 많이 하는 나라도 드물다
- 계획의 주요내용은 개발의 공간적 구조(토지이용)다. 이러한 구조는 일개의 공간적 틀에 불과하다.
- 개발이란 이러한 틀속에 기업이 있어서 생산활동을 해야 한다. 공간적 계획과 산업정책이 일치되어야 한다.
- 산업정책이란 기존 산업의 현대화, 신규기업의 창업 및 외부기업유입이다.
- 계획과 산업정책간의 조화를 확보하려면 지역단체로 구성된 총괄기관이 이러한 조화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 세계화시대의 지역지속가능개발전략

○ 도시체계 개선

- 우선 서울 및 지방광역도시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도시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서울, 수도권은 전국의 거점지역이 되고 지방광역시는 지방거점도시가 되어야 한다.
- 도시체계란 도시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도시간의 상하관계(상위도시, 하위도시)는 보완적이어야 하며 상위도시는 하위도시의 상품을 구입, 기술이전, 인적개발협조, R/D협조, 합작사업을 통해서 함께 크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동등한 도시간의 관계는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가 되어야 하고 공항, 유통시설을 위한 공공투자, 도시관리에 대한 정보교환,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교환, 공동인력개발 등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 지역개발의 핵심적 원동력의 하나가 지방대학의 역할이다. 지방대학의 주요역할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기술개발, 창업 등인데 이렇게 하려면 지방대학은 지역주민과 한 팀이 되어야 한다.

- 또한 지방대학은 여타 외국대학은 물론 수도권지역의 대학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방정부의 역할

-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역의 노동력, 자본, 기술 등을 총동원하여 주민과 함께 지역사정에 적합한 지속가능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둘째, 지방정부는 상위정부와 동반자로 협조해야 한다.
- 셋째, 지역주민의 적극참여를 통해 개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강화시켜야 한다.
- 특히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있는 현실적 거버넌스(governance)를 창출해야 한다.

○ 중앙정부의 역할

- 한편 중앙정부의 역할은 변해야 한다. 우선 지역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도시체제형성을 도와주어야 한다.
- 둘째, 국제경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 지역의 국제화과정을 도와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조직 및 행사에 지방정부 대표를 참석하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를 통치대상자가 아니고 파트너(partner)로서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 결론

- 서울, 수도권과밀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지역격차는 그동안 많이 완화되었다.

- 서울, 수도권개발을 억제하여 강제적으로 인구를 분산시켜서는 지방개발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경제력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 세계화속의 지속가능개발은 세계도시, 대도시 중심의 도시체제를 설립하여 모든 지역이 동시에 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겠다.
- 일정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개발하게끔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 정책, 정치 측면에서는 실질적 권력, 권리의 지방분권화 및 지역재정자립도제고가 가장 시급하다.
- 끝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지방·지역정부의 국제적 활동강화를 위한 과감한 지원을 해주어야 하겠다.
- 우리나라의 도시체제는 다른국가에서 보지 못하는 건전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대립적 수도권-비수도권 관계에서 탈피하여 보완적, 협조적 관계로 정착시키면 조화로운 지속가능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김영식, 권영섭(1993), “헤도닉가격기법을 이용한 대기질 개선시의 편이 추정”, 자원경제학회지 제3권 제1호, p.81-105
- 권용우(2004), “수도권 문제해결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대안 모색 토론회, 대한국토계획학회/경실련 도시계획센터, 2004, 11.29
- 권일(2004), “국토불균형과 신행정수도”, 신행정수도 건설이 서울 및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p.271-285
- 박수영(2004), 수도권과 국토균형발전, 선문대학교
- 인방송(1998), “도시교통정책의 경제론”, 박영사
- 임길진(2003), “신행정수도, 국민복지 그리고 주택시장”, 신행정수도건설과 주택시장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 지해명(2004), “수도이전이 강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신행정수도건설이 서울 및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 최상철(2004),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의 논리적 모순과 상충성”, 신행정수도 건설이 서울 및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p.261-270
- 홍갑선(1999), “교통관련 사회환경 비용의 내재화방안”,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총서, p.99-103
- 홍성웅(2004), 수도권기능과 국토의 경영
- 홍성웅(1988), “사회정의와 지역정책”, 국토연구, 제10권, 국토개발연구원
- 황명찬(2004),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 Balchin P. N.(2000), Urban Economics
- Berry Brian J. L.(1961), "City Size Distribu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e, Np.9

- Borja, Jordi and Manuel Castells(1999), "Local and Global Management in the Information Age", The Earthcan Publication Ltd.
- Chung, Hee Soo(Joseph)(2000), "Regional Disparities and Regional Industrial Policy", OECD-Korea Workshop on Territorial Poicies and Issues, March 8-9, Seoul
- Chung, J. H., D. Achour, Alain Lapointe(1982), *Economie Urbaine*, Gaetan Morin
- Fujita, Kuniko(2003), "Neo-Industrial Tokyo : Urban 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in Japan's State Oriented Development Capitalism", *Urban Studies*, Vol. 40, No. 2, p.249-281
- Hill, B. C. and Kim, J. W.(2000), "Global Cities and Development States: New York, Tokyo and Seoul", *Urban Studies*, 37(12), p.2167-2195
- Lim, Gill-Chin(2003), "Spatial Impact of Globalization: A Case Study of Korea".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mpact of Globalization of Urban Development, Bellagio, Italy, Aug. 18-21
- Mills, E. S.(1972), "Welfare Aspects of National Policy Towards City", *Urban Studies*, p.111-124